

#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 2025 상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 마감 : 2월 7일(금)까지 / 사무국으로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 오윤걸 장로)는 2025 상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생은 신앙생활에 모범적이며 교회봉사와 청년부에 출석 중인 대학생으로 봉사부서와 청년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또는 신앙 간증문,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2월 7일(금)까지 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니다.

청년부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2월 23일(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에 있을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전원 참석하여야 합니다.

년 찬양예배 시에 있을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전원 참석하여야 합니다.

## 고령 성도 및 장기 결석 환자 성도 심방

2025년을 시작하며 손달의 위임목사님께서 고령의 성도들과 장기 결석 중인 환자들을 심방 중입니다. 심방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교구 담당교역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는 최춘자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김민희2 집사님 심방이 있었습니다



최춘자 권사님 심방



김순자 권사님 심방



김민희2 집사님 심방

##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손달의·박영숙(1) 홍순복(1) 김신진(1) 차영도(0.5)홍혜련(0.5) 서은석·김미성(0.5) 유충기(1) 정철웅(1) 원유현·전성희(0.5) 이민호·김희(1) 노제현(1) 윤준섭(0.5) 하인선·남태순(1) 하혜심(1) 이순례(1) 김유평·이순형(1) 유성택·권진순(1) 노문환(0.5) 김익환·이선애(0.5)허경화(1) 제1권사회(1) 황병석·김영숙(0.5) 양승호·고은희(1) 문동진·김은정(1) 김애리(0.5) 김은석(0.5) 에스더전도회(1) 오정수·이영희(1) 2스데반회(0.5) 홍혜란(0.5) 지성철(0.5) 이태승·정진영(1) 김광민·박민숙(1) 이영조·이영자(0.5) 양춘경·이인숙(0.5) 김동준·이신혜(0.5) 송성식·정희순(0.5) 박정자(0.5) 김재중·김유경(1) 김혜연·박은영(1) 제2권사회(1) 리브가전도회(1) 한나전도회(1)

## Vision2030운동 후원자

손달의·박영숙(5) 김익환·이선애(2) 최종국·유에스더(2) 황하은(1) 에스더전도회(1) 1권사회(1) 2스데반회(5) 고선옥(1) 곽선자(1) 김광래(1) 김광민·박민숙(1) 김명자(1) 김미영(1) 김숙자(1) 김신진(1) 김애리(1) 김양숙(1) 김영희·이현정(2) 김유평·이순형(5) 김은석(1) 김재중·김유경(2) 김지수·김순진(1) 김진숙(1) 김혜연·박은영(2) 노문환·장정화(2) 노정진(1/2) 노제현(5) 박정자(2) 서은석·김미성(5) 송영재·함정희(2) 송인덕(1) 양승호(1) 양옥자(1) 양춘경·이인숙(5) 오만옥·박미영(1) 오용이(2) 오정수·이영희(5) 유병욱(1) 유성택·권진순(2) 유외숙(1) 유충기(5) 이민호·김희(1) 이선희(1) 이순례(2) 이신재(5) 이영조·이영자(2) 이태승·정진영(1) 임우택·김정숙(3) 전성희(1) 전용순(1) 정철웅(1) 조정옥(1) 지성철(3) 차영도(1) 최임수(1) 최흥열·오충례(1) 하인선·남태순(5) 하혜심(1) 허경화(1) 홍순복(3) 홍혜란(3) 황병석·김영숙(2) 황재연(1) 제2 권사회(5) 리브가전도회(2) 한나전도회(3)

\* 후원 봉투는 이번 주부터 2층 본당 로비에 비치됩니다.

##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

손달의·박영숙(1) 노제현(1) 정철웅(1) 양춘경·이인숙(1) 이신영(0.5) 김애리(0.5) 양옥자(1) 이순례(1) 김은석(0.5) 주화인(1) 원유현·전성희(1) 양승호·고은희(1) 김지수·김순진(0.5) 차영도(0.5) 김유평·이순형(1) 김미영(0.5) 황병석·김영숙(0.5) 송인덕/이홍숙(0.5) 최원자(0.5) 이상섭(1) 김광민·박민숙(1) 박정자(0.5) 문동진·김은정(1) 김익환·이선애(0.5) 최숙희(1) 이태승·정진영(1) 임우택·김정숙(0.5) 홍석현(0.5) 이민호·김희(1) 유충기(1) 노문환(0.5) 송영재·함정희(1) 최종금(0.5) 김재중·김유경(1) 김세호(1) 홍혜련(0.5) 하인선·남태순(1) 하혜심(1) 홍혜란(0.5) 김혜연·박은영(1) 서은석·김미성(0.5) 허경화(1) 지성철(0.5) 이영조·이영자(0.5) 홍순복(1) 박창희(1) 오정수·이영희(1) 제1권사회(1) 에스더전도회(1) 2스데반회(0.5) 제2권사회(1) 리브가전도회(1) 한나전도회(1)

##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료를 원하는 성도들은 seoulch@hanmail.net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성명 / ② 주민번호 / ③ 전화번호
- ④ 주소 / ⑤ 가족합산 여부

연말정산 자료는 수신 이메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립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 (담당: 송마라 권사)
- \* 제공된 개인 정보는 연말정산 후 삭제함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 \* 신한은행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 \* 장학금 계좌 : 신한은행  
100-037-522042  
대한예장 서울교회 손달의

# 그런즉 깨어 있으라

마 25:1-13



순달익 위임목사

예수님께서 셋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영적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종말에 대한 현상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종말을 대비하는 영적 자세와 종말의 심판에 대해 열 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까지 방심하거나 나태하

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엄중하게 가르치시면서 이를 '깨어 있으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에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마태에 6회 마가에 7회 누가에 2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살전 5:6),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라고 말씀했습니다.

## 1. 왜 주님은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가?

종말에 대한 논란은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일수록 더 격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종말을 세 가지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둘째는 예루살렘이 몰락하는 민족의 종말을 의미하셨습니다.(마 24:2) 셋째는 우주적 종말로 주님의 재림을 전후로 한 대 환난과 관련된 종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종말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은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잘 예비할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힘든 세상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나름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한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하시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마 24:39). 세상사에 분주하여 옳고 그름의 구분도 없고 신앙도 양심도 버린 채 살아가다가 홍수 심판에 직면했다는 말씀입니다. 정신없이 분주하게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죄짓는 일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종말이 오고 죽음이 오는데 나는 예외일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세상사가 혼란하고 허무하며 단지 세상의 더 자극적인 쾌락만 찾게 됩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단지 죽음만 확실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말을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말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지나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새 하늘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말은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깨어 있으라'고 가르칩니다.

## 2. 깨어 있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종말을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하시며 세 가지 비유로 가르칩니다. 첫 번째 열 처녀 비유는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삶의 지혜로움에 대하여,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맡겨 주신 일에 대한 성실한 충성에 대하여,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신앙의 진정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 가지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12절)는 대답을 들어야 했고,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살았던 위선자들에게 대하여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마 25:41)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13절).

문제의 핵심은 깨어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은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열 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열 처녀들은 신자들을, 잠든 것은 영적 나태를,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것은 성령 충만치 못한 육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의 영적 실패가 깨어 있지 못함과 성령 충만치 못함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2) 예민한 영적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으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취할 것과 버릴 것, 가까이할 것과 멀리해야 할 일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탄의 역사에는 속임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3) 깨어 있음은 언제나 준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 3. 결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열 처녀 비유에서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기름이었습니다. 혹 다른 부분이 부족했다고 해도 기름이 충분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신앙인에게 지식이 다소 부족하고 인생 역량이 충분하지 못해도 신앙을 유지하고 천국 가는 일에 근본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하실 당시의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긴박한 상황에서 돌연 셋세마네로 가셔서 마지막 밤을 통절한 기도로 보내십니다. 주님께서도 이 사명의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시기 위해서는 홀로는 감당하실 수 없는 어려움을 직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의지와 고통을 극복할 능력과 그 과정에서 누구도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온 인류의 죄 짐을 대신 지실 메시아의 위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누구도 도와드릴 수 없는 일임을 아시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밤을 새워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십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친구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영적 삶의 근본 동력은 사람에게서 빌리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나 능력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의 은사를 내가 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온 세상의 종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승화되는 영광과 은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에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종말은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깨어 있으라'고 가르칩니다

#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도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2025년 새해 문안드립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전쟁과 폭력과 억압과 불의가 심해지는 이 때에 예수님만이 해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 먼자를 다시 보게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사랑으로 그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2025년 희망찬 새해!

전쟁 상황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온갖 고난과 핍박과 절망과 좌절과 실패에 울고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성도님들의 가정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러시아 김영호 · 서향정 선교사 드림

##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서울교회!

2024년 한 해도 과거의 한 페이지로 마무리 되었네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마음을 잃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음은 믿음의 귀한 동역을 해 주신 서울교회 손달의 위임목사님과 선교담당 목사님 그리고 선교위원장님, 특별히 기도팀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로 인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감격과 기쁨이 가득한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서머나에서 전광혜 선교사



## 중앙아시아 무슬림 땅에 성령의 역사가, 전도의 돌파가 일어나길

2025년 새해에도 우리 서울교회와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도 이곳 선교지와 저희들을 위해 한결같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저희가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멀리 0000에 사는 라우라 가정에 심방을 갔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000 가정은 아직은 온전한 믿음 위에 서있지 않지만 그의 가정 모두 (자녀 6명)가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월 22일 주일은 성탄축하예배로 드렸습니다. 멀리 00000에서도 그리고 0000에서도 성도들이 와서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제자들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이 중앙아시아 무슬림 땅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전도의 돌파가 일어나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히도록
2. 000 트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며 그들이 강한 주님의 제자들과 군대들로 세워지도록
3. 새벽기도회와 저녁기도회(온라인)가 성령의 역사가 넘쳐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4.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 무릎관절수술(미라), 고혈압(클라라, 임스베타, 지나이다)
5. 젊은 부부와 자녀들이 믿음 위에 잘 세워지도록 (아슬란 가정, 라우라 가정, 스페타 가정)
6. 셋째 아들 이평화 가정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7. 강혜정 선교사는 연 2회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검진과 치료(방광암)를 받고 있습니다. 강혜정 선교사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위 기도제목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서울교회 파송선교사 이은준 · 강혜정 올림

\* 선교사님의 신변을 위해 국가명과 지역명은 00처리합니다.

## 발로아첸!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4년 여름, 방글라데시의 반정부 시위로 어수선했던 정국은 과도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전히 불안정한 정국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2025년을 평온히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 오줌을 안 싸게 해주세요.", "혼자 사는 어머니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41명의 호스텔 아이들이 저마다 간절한 소망을 품고 새해의 일상을 평안히 시작할 수 있음은 크나큰

기쁨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2025년의 감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요즘 여러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방글라데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서울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소망의 아이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한국과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조남혜 선교사



## 2025 겨울수련회

### 청년부 겨울수련회!

주님 품에 안겨  
IN THE ARMS OF THE LORD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서울교회 청년부  
2025  
동계 수련회**

청년 예배의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해  
마음을 열고 관계 회복을 위해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과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

2월 6일~8일 기독교 캠프 코리아 한국공회대학교,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문의 : 유승현 회장 010-6573-9855

## 2025 겨울성경학교·수련회 일정

2월 6일(목), 청년부를 시작으로

부서	주제	주제 말씀	일정	장소
유아부	성령님과 쓱쓱! 자라는 나!	갈 5:22-23	2월 15(토)-16(주일)	서울교회
유치부	예수님처럼 선택해요	잠 3:5	2월 15(토)-16(주일)	서울교회
유년부	예수님처럼 선택해요!	잠 3:5	2월 21일(금)-22일(토)	서울교회
초등부	신나는 성경탐험 (구약)	수 1:8	2월 21일(금)-22일(토)	서울교회
중등부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창 45:7	2월 14일(금)-15일(토) 16(주일)	아가페타운 서울교회
고등부	아빠 아버지	갈 4: 6-7	2월 14일(금)-15일(토)	아가페타운
청년부	주님 품에 안겨	사 41:10	2월 6일(목)-8일(토)	캠프 코리아(시흥)
사랑부	우리는 세상의 빛	마 5:14-16	2월 22일(토)-23일(주일)	서울교회

할렐루야!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을 청년부 겨울수련회에 초대합니다.

25년 겨울수련회는 2월 6일(목)부터 2월 8일(토)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시흥시의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기도와 찬양의 뜨거움을 느끼고, 예배를 향한 뜨거움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하여 밖으로 흘러 넘치는 서울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 수련회는 아가페타운이 아닌 외부 캠프로 계획했고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리고 은혜받는 복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부에 잘 출석하지 않던 분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문의 및 후원은 황하은 목사, 장윤기 청년부장집사, 청년부 회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부 일동 -

## ‘호산나대학-(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업무협약(MOU) 체결’

호산나대학(이동귀 학장)은 지난 12월 23일(월)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윤종술 회장)와 발달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충을 위하여 양 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협약 내용은 △ 발달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 및 입법 활동 협력 △ 발달장애인 고등교육의 필요성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 및 세미나 개최 △ 발달장애인 권익 옹호와 차별에 대한 상시적인 연대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고 하였습니다.

이동귀 학장은 “호산나대학은 약 20년의 역사를 가진 경증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성화(노인요양학과, 애견케어학과) 직업 전문 고등교육기관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 과정을 통해 높은 취업률과 장기 고용유지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호산나대학이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녀들에게 호산나대학과 같은 직업 전문 교육 기관들이 더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 36강 : 성만찬(3)

### 성만찬의 해석이 교파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교파적 배경이나 학문적 여정에 따라 그리고 그 해석자가 현재 속해 있는 신앙공동체에 따라 성경 본문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실 때 말씀하신 내용, 곧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성만찬 제정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살과 피로 변화시키는 사제의 권능을 강화했다면, 츠빙글리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나게

만드는 제의(ritual)임을 강조하였고, 칼뱅은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성령의 임재 및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12세기에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체설을 공식적인 교리로 확립했습니다. 이에 반대한 루터는 주님의 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성만찬의 공간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공재설을 주장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츠빙글리는 빵과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기념설을 주장

했고,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진행하던 칼뱅은 성만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영적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화체설을 공식적인 교리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미사에 참여하여 성만찬의 떡을 받아먹지 못하면 구원의 은총에서 끊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주입되는 통로인 미사에 참여하여 성만찬의 떡에 참여하지 못하면 구원의 은총에서 떨어진다고 가르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79문 :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답 :**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써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맥락을 같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는 유월절 식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기 직전에 열 번째 재앙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열 번째 재앙은 마지막 재앙인 장자들의 죽음인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다”는 의미에서 넘을 유(逾)와 건널 월(越) 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지만, 피를 먹지 않고 고기를 먹는 것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이니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니(신 12:23)”는 말씀 때문입니다. 마치 양고기를 먹음으로써 유월절 당시의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을 구원받는 방법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가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얻은 구원의 은혜를 맛본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 80문 :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 :**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이르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러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숭배입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모두 ‘구원의 신비와 비밀’을 맞보는 자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례의 핵심이라고 할 때, 모든 전통이 성례로 인정하는 성만찬을 예로

들어 기념설, 영적임재설, 화체설은 각각 ‘구원의 신비와 비밀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지 구분하여 표현해 보는 것도 성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신비와 비밀을 ‘기억’하게 또는 ‘생각나게’하는 의식으로서 성례와, ‘경험’하게 하는 의식으로서의 성례, ‘주입’하는 의식으로서의 성례로 구분할 때, 매개체인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문제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제의 역할이라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적임재설에 따르면, 성례에서 떡과 포도주라는 구원의 신비와 비밀의 매개체를 먹고 마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구원의 신비와 비밀을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때 경험의 주체는 성례 참여자이며, 경험의 대상은 성례의 물질적 요소인 떡과 포도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 과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단순히 떡과 포도주라는 물질에 국한되는가, 아니면 이 물질과 함께 구원의 신비와 비밀도 함께 경험

하는가? 만약 전자라면, 구원의 신비와 비밀은 단순한 기억이나 상기의 대상이 되어 기념설의 범주에 머무르게 됩니다. 반면 영적임재설은 후자의 입장을 취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심으로 떡과 포도주뿐 아니라 구원의 신비와 비밀까지도 함께 경험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는 방식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집례하는 사제가 기도할 때 떡이 그리스도의 살로,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권능은 사제가 서품을 받을 때 주교로부터 전해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사제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나아가 사제는 떡과 포도주를 살과 피로 변화시키는 능력뿐 아니라, 수찬정지를 통해 신자들을 구원의 은총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 제2 스테반회 1월 특강

1월 25일(토) 오후 3시 30분



강사  
김동진 안수집사

제2 스테반회(회장 : 김용기 안수집사)는 1월 특강을 갖습니다.

일시는 1월 25일(토) 오후 3시 30분으로 한 시간가량 진행됩니다. 특강 주제는 "한국경제 주요 현안과 국제환경"입니다. 특강 내용과 강사 약

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테반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강의 내용 -

1. 국가신인도( Country Risk)
2. 환율 결정 및 영향
3. 금리 결정 및 영향
4. 국제 환경과 한국의 산업구조 방향
5. 질의 · 응답

- 강사 약력 -

- 전 체이스맨하탄 은행 서울지점 본부장
- 전 BNP(파리국립 은행) 서울지점 총괄이사
- 전 프놈펜 ABA 은행 은행장
- 전 세종증권 대표이사
- 현 한아세안포럼 부회장
- 현 에이피앤비 주식회사 대표이사
- 현 아거스 타임즈 논설위원

식사 제공

- 교회 제공

##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2)558-1106 (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김민우 오원준 감정현 구민우 허정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 상담이 필요하세요?

서울교회 상담부에 상담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문자 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 상담분야 : 법률, 세무, 교육, 가정
- 연락처 : 010-2376-3892번으로
- 문자 양식 : 교구, 성명, 상담분야

## 지하 주차장 이용 에티켓

1. 주일 종일 봉사자는 지하 3층, 혹은 뒷열에 주차 하기
2. 앞열 혹은 2중 주차 시 꼭 주차관리실에 자동차 키 보관하기
3. 운전석 전면에 연락처 올려놓기

배식 봉사

이번 주 : 에스더전도회  
다음 주 : 사라전도회

설거지 봉사

이번 주 : 스테반회 교육부  
다음 주 : 스테반회 봉사부

## 2025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일 자	요일	1년 1독
1월19일	주일	출 12-14
1월20일	월	출 15-17
1월21일	화	출 18-20
1월22일	수	출 21-23
1월23일	목	출 24-26
1월24일	금	출 27-29
1월25일	토	출 30-32

이름:

맥체인 성경통독			
창20	마19	느9	행19
창21	마20	느10	행20
창22	마21	느11	행21
창23	마22	느12	행22
창24	마23	느13	행23
창25	마24	에1	행24
창26	마25	에2	행25

##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한가정한선교사 · 농어촌100교회 · Vision2030 후원 운동에 온 성도가 동참하여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따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4대 위임목사 청빙 절차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소서.
3. 대한민국에 안정과 평화를 허락하시고, 분쟁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부목사

김익환 최중국 황하은

◇ 교육목사

손주찬

◇ 준전임전도사

성선혜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는 조하영 안반석

◇ 협동목사

양정호

◇ 호산나대학 교목

장석남

◇ 사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서은석 노제현 김광태 김태연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임우택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0시 30분 - 12시	601호
중등부	오전 10시 30분 - 12시	501호
고등부	오전 10시 30분 - 12시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7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 홈페이지QR코드



## ■ 유튜브 QR코드



## ■ 교회 오시는 길

